

암에 걸린 한 여배우가 있다. 의사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1년 정도”라고 선고한다. 그로부터 18년. 그러나 지금 그 여배우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증언하고 미래의 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배우 이주실

암을 극복한 이름, 도전



유방암 판정 후 3년 시골 전역을 돌며 무대 위에 서다

‘암 투병 여배우’란 꼬리표를 늘 달고 산다는 배우 이주실. 그러나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지나온 삶을 풀어내는 그녀의 모습, 그 어디에도 암 투병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방암 3기’란 판정을 받은 건 지금부터 18년 전인 1993년. 이미 뺏속까지 암세포가 퍼져 1년도 넘기기 힘들다고 의사는 말했다. 그러나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힘든 암 투병을 견디다 보니 몸무게가 33kg까지 빠졌고, 정신도 피폐해졌다.

“집에 암환자가 있으면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나는 그게 싫었어요. 가족들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나 혼자 조용히 환자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남은 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고민했다. 남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모노드라마를 떠올렸다. 문화의 불모지인 시골 지역을 돌면서 공연을 했다. 개런티도 안 받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12곳에서 공연을 했다. 폐교를 빌려 공연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그동안 헛살았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암 투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녀가 12곳에서 공연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년이었다. “1년도 못산다고 했는데 공연에 몰입하다 보니 견뎌낼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오늘이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렇게 열심히 공연하다 보니 3년이 훌쩍 지나갔죠.”

대안학교 선생님, 보건학 박사 학위까지 ‘도전 위에 도전’

목표했던 공연이 끝날 때쯤 새로운 도전이 그에게 다가왔다. 대안학교였던 전남 영광의 성지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쫓겨난 반항심 많고 공격적인 아이들이었다. 50분으로 예정된 강연을 15분도 못 버티고 내려왔다. 스스로 인간쓰레기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녀는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다고. 그 길로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냈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 연기를 가르치기로 했다. 마음을 열기가 가장 힘들었다. 칭찬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래서 칭찬에 낯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칭찬해주었다. 그러자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그녀는 의욕이 생겼고 꿈이 생겼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날 문득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꿈이 있었기에 도전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최면을 걸었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다시 또 다그치고.” 그녀는 끝으로 이런 말을 했다. “1년 안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전과 꿈을 반복하며 지금껏 살아내고 있어요.”

2000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입학 시험을 쳤다가 낙방했다.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 해 간신히 들어갔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4학년 때는 장학금도 받았다.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고 내친김에 보건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다.

더욱 단단하게 노래하리라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70을 바라보는 나이, 그녀는 뮤지컬에 도전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오디션에 합격한 그녀는 혹독한 연습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무대를 누볐다.

“하루 10시간씩 연습하는 강행군이었어요. 꿈이 있었기에 도전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최면을 걸었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다시 또 다그치고.”

그녀는 끝으로 이런 말을 했다. “1년 안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전과 꿈을 반복하며 지금껏 살아내고 있어요.”

그녀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KBS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의 단원으로 멋진 하모니를 연습 중이다. 그녀의 도전이 아름다운 이유다. MEDICHECK